

가축은 거짓말을 하지 못한다



이인형
전 축산시험장장

내가 국립종축장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1971년은 국립종축장이 신설 된지 2년밖에 되지 않아 기관의 운영체제, 젓소의 다두사육체제와 초지관리 및 조사료생산체제 등이 정착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초를 제조할 옥수수 밭에는 옥수수자루가 달려있는 것이 잘 보이지 않았고, 농후사료와 건초도 도둑을 맞는 등 기강이 헤이되어 춘추전국시대에 비유하여도 잘못이 없을 만큼 혼란한 시기였다. 그래서 그해 봄은 갖은 고생을 하여 가며 어렵게 넘기고 봄의 호맥생산서부터 여름과 가을의 건초생산과 매초생산까지 조사료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사료과의 협조를 얻어 그해 가을에는 어느 정도 좋다고 할 수 있는 질의 건초와 매초를 확보하였고 젓 생산량도 회복되는 듯 하였다.

그런데 또 복병을 만나게 된 것은 가끔가다 지붕만 있는 건초창고에서 건초가 없어지는 흔적이 발견되어 시험보조원들에게 숙직을 할 때에 철저히 순시를 하고 관찰을 하도록 부탁을 하여도 허사였다. 그래서 내가 직접 건초창고에서 도둑을 잡기위하여 몇 번의 밤

을 새웠으나 헛수고만 하고 도둑은 잡지를 못하였다. 한편으로는 관리자가 아니고 나의 직급이 연구사로서 계급이 낮다보니 내가 생각한대로 할 수 없는 것이 공무원조직의 특성이니 어찌하겠는가?

그렇게 1년 반을 지난 1972년 7월에 단독 추천이 아닌 또 다시 5배수 추천에 의하여 연구관승진시험에 가까스로 합격하였고, 연구관으로 승진하여서는 송아지만을 120~150여두를 사육하는 우사를 혼자서 관리하게 되었다. 송아지우사에 와서 보니 역시 송아지의 발육상황은 좋지가 않았고, 이때에는 배합사료창고에서 사료가 없어지는 것 같아 송아지우사에서 마울로 나가는 길목 숲에서 밤에 잠복할 3번째 되는 날, 새벽 2시경, 쪽박 같은 반달이 하늘에 떠 있는 시간에 누군가가 우사 근처의 사이로에서 사료가 담긴 빛짚으로 만든 큰 가마니를 지고 나와 내가 잠복하고 있는 길옆으로 지나 갈 때에 누구야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뛰어 나가 잡고 보니 어느 연구관의 친척이었으나 인정사정없이 그날로 퇴직을 시켰다.

그리고 내가 송아지 우사를 담당한 이후에 내가 별 수 있는가? 하며 비웃듯이 송아지가 죽는 수가 더 늘고 있었다. 그래서 하루는 무리한 방법이란 것을 알면서 아침관리를 하기 전에 시험보조원 전원을 모아 놓고 오늘은 농후사료를 급여하고 물은 급여하지 말고 내가 별도로 지시하는 시간에 물을 공급하라고 한 후에 점심시간이 지나 오후 3시경에 송아지 전 두수에 물을 주라고 하였다. 그리고 사무실에서 송아지가 죽었다는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한 30여분이 지나서 시험보조원 반장이 숨을 가쁘게 몰아쉬면서 사무실로 들어서서 큰일 났습니다. 우사에서 사육하는 중송아지 3마리가 죽으려고 합니다. 하고 보고를 하기에 수의사에게 연락하여 치료를 하라고 하고 계속 사무실에서 나는 태연하게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

한참을 지난 시간, 수의사와 시험보조 반장이 같이 들어와 한 마리는 죽었고 2마리도 위험하다고 하면서 케이지에서 기르고 있는 송아지는 대부분이 설사를 심하게 하여 치료를 하여야 하겠는데 원인은 물을 갑자기 많이 급여한 것이 원인인 것 같다는 것이다. 그래서 알았다고 하면서 치료를 잘 부탁한다고 수의사에게 말을 하면서 현장으로 가보니 5~6개월 된 송아지가 배가 축구공과 같이 부풀러 올라서 숨을 가쁘게 몰아쉬고 있는가 하면, 케이지에 있는 송아지는 설사를 확확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날 퇴근시간에 전 직원을 모아 놓고 사료도독을 잡았고, 송아지관리를 엉망으로 하여 죽이는 방법도 연습을 하였으니 잘하여 줄 것을 부탁을 한 후부터는 사료도독도 없었고 관리도 잘하니 송아지 발육이 양호하였다.

가축은 말이 없으나 먹는 만큼 성장하고 자기 본래의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표현하면 바보스러운 이야기인지, 우문우답(愚問愚答)인지 모르겠다.

내가 송아지우사를 담당한지 1년이 지나서 나에게

는 또 다시 나 자신의 생활을 포기 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다름이 아니라 젖을 착유하는 400두를 사육하는 3개 우사에 연구관 2명이 관리하던 것을 전 두수를 나 혼자서 담당하고, 농후사료 관리와 공급업무도 담당하라는 장장의 업무분담명령이 시행된 것이다.

그래서 나는 마음을 단단히 가다듬으면서 농후사료 급여체계와 공급대책 및 젖소의 방목체계와 건초 및 매초의 생산체계 등의 종합대책을 장장에게 보고하여 다음해부터는 농후사료 예산을 넉넉하게 확보함과 동시에 국립종축장내의 사료공장을 폐쇄하고 내가 송아지용, 육성우용 그리고 착유우용 농후사료의 단미사료별로 사용할 성분표를 작성하여 사료배합비율을 정하고 전국의 배합사료공장을 대상으로 공개입찰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전환하였다. 배합하는 과정을 내가 입회하는 조건이었다. 그 당시에 일반 배합사료공장도 단미사료별 저장시설이 없어 원료를 혼합기에 넣을 때에는 사람이 삽으로 혼합하면서 넣는 시대였다. 물론 배합과정을 입회한다고 하나 전 과정을 정확히 확인은 할 수가 없지만 입회 그 자체만으로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며, 배합에 사용되는 각 단미사료의 질은 나쁜 것을 육안으로 구별하여 교체를 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

한편으로는 젖소를 전기방목을 실시하면서 윤환방목체계를 확립하여 이른 봄부터 가을까지 중단되는 일 없이 계속방목을 하였고, 5월말부터 6월까지의 풀이 남아도는 것은 건초를 만들고 청초를 예취하여 매초를 담그거나 우사에서 소에게 급여하였다. 그리고 그 때까지 젖 생산과 젖소 개체의 능력을 떨어트리게 하였던 것은 착유우에 대한 농후사료급여량은 젖 생산량의 3분의1이던 원칙을 무시하고, 방목장의 청초, 건초 및 매초의 질에 따라, 젖소의 젖 생산량에 따라 농후사료급여량을 조절하고 젖 생산량이 비슷한 개체 들끼리 군을 구분하여 관리하였다.